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채명옥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Myung-Ock Chae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간호대학생 3, 4학년 175명에게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고, 분석방법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개념은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직자아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고, 56.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신입생 때부터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175 nursing students in the 3rd and 4th grades of the nursing students by questionnaire method. The analysis method wa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It revealed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gender,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n major and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and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ion on major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These variables accounted for 56.4% of professional self-concep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by implementing a gradual intervention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and satisfaction on major from the freshman period.

Key Words :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Undergraduat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보건복지부가 2018년 3월에 발표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보고서에 따르면[1],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방문간호 확대 및 국가치매책임제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간호사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인원은 2017년 18만 6천명으로 전체 간호사의 49.6%에 불과하며,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6.5명의 53.8% 수준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간호사 전체의 이직률은 12.4%이지

*Corresponding Author : Myung-Ock Chae(7702cmo@cju.ac.kr)

Received April 12, 2019
Accepted July 20, 2019

Revised May 13, 2019
Published July 28, 2019

만,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이직률은 33.9%로 약 3배 정도에 달해[2] 신규간호사가 장기근속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3교대 또는 야간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1]해 나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 개개인의 기본적인 능력 및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적 노력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 중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은 졸업 후 간호사로 활동할 간호대학생들이 자기 자신 또는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느낌 및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호사로서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료 직종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하며 주어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자아개념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3]. 실제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문직자아개념은 재직의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으므로[4],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전문직자아개념을 강화시켜 신규간호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고 높은 이직률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5]. 자기평가 특성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이 직무 만족 및 직무 수행의 중요한 예측인자였다는 메타분석 연구[6]와 '본인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화 및 실제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전문직자아개념과 전공만족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7]는 선행연구의 결과로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 전문직자아개념의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확신으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목표나 흥미, 능력을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견비하고 있는 지로 정의된다[8].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은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진로준비 활동을 이행할 것이고[9], 그 과정에서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이 향상되어 간호대학생의 재직의도를 강화시킬[4]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간호대학생 임상수행능력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진로정체감[10], 전문직자아개념[11]이 확인된 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총 임상실습 기간에 따라 전문직자아개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

는 실습을 경험하면서 이론적으로 배운 지식과 기술의 적용,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정립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면서 전문직으로써의 느낌 및 견해가 긍정적으로 강화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3]. 그러므로 실제로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전문직자아개념 관련 영향요인 규명을 통해 취업에 압박해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임상에 대한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거나 이직의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영향요인 관련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간호와 관련된 전문직자아개념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대학생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간호사 대상의 연구는 자아존중감[12], 자아탄력성[13], 자기효능감[13], 셀프리더십[14], 직무스트레스[15], 직무만족[12,15], 업무수행능력 및 간호수행능력[16,17], 임파워먼트[18], 재직의도[4,17] 등과 같은 변수들과 전문직자아개념의 상관관계 또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는 우울[19], 취업불안[20], 행복감[21], 감성지능[22], 자아존중감[3,7], 자아탄력성[23], 자기효능감[3,7], 비판적 사고성향[21,22,24-26], 문제해결능력[22], 대학생활적응[23], 임상실습스트레스[26], 임상실습만족[11,24-27], 임상수행능력[11,26,27] 등과 같은 변수들과 전문직자아개념의 관계성 및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와 간호역사 문화 융합프로그램[28] 등과 같은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취업을 앞두고 있으면서 간호사 인력현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호대학생 고학년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을 모두 포함한 융복합적인 관계 규명 연구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을 파악하고, 전문직자아개념 주요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간호사의 재직의도를 강화하여 적정 간호인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 1) 간호대학생 3, 4 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정도를 확인한다.
- 2) 간호대학생 3, 4 학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 3, 4 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 3, 4 학년의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 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 정체감이 전문직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C시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 학년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표본 수는 G*power 프로그램[29]을 활용하여 산정하였고, 통계방법을 Linear multiple regression,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의 수를 8개로 하였을 때, 160명으로 나타났다. 탈락률을 고려해 177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한 자료 중 응답이 불성실한 2부를 제외하고 17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30]이 개발하고 Hong [31]이 수정 및 보완한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SES)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 자기효능감 17문항,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Hong [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2.3.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Kim과 Kim[32]이 개발한 대학생용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정체감 정서 8문항, 진로정체감 인지 7문항, 진로정체감 행동 8문항, 총 23문항 구성되어 있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im[3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3.3 전문직자아개념

전문직자아개념은 Arthur[33]가 개발한 도구를 Song과 Noh[34]가 번역한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Song과 Noh[3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자료 수집은 2018년 6월 1일에서 8월 29일까지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발적인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설문지 작성은 15-20분이 소요되었다.

2.5 윤리적 고려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배경, 목적, 연구 방법,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중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공지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은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한 후, Scheffe test로 사후분석 하였다.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사용하였고,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평균연령은 21.75세이고, 성별은 여성이 150명(85.7%)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이 91명(52.0%)으로 더 많았다. 종교는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9명(68.0%)이었고, 건강상태는 101명(57.7%)이 '양호한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대인관계는 129명(73.7%)이 '좋은 편'이었다. 대학생활은 '매우 만족'과 '조금 만족'이 각각 24명(13.7%), 65명(37.1%)이었고, 전공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과 '조금 만족'이 각각 39명(22.3%), 60명(34.3%)으로 재학생의 50%이상은 대학생활과 간호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간 정도'로 응답한 경우가 98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5)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or M±SD |
|----------------------------------|---------------------------------|-------------------|
| Age (yr) | | 21.75±1.38 |
| Gender | Female | 150(85.7) |
| | Male | 25(14.3) |
| Grade | 3 | 84(48.0) |
| | 4 | 91(52.0) |
| Religion | Yes | 56(32.0) |
| | No | 119(68.0) |
| Health status | Good | 101(57.7) |
| | Common | 67(38.3) |
| | Bad | 7(4.0)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Good |
| Common | | 45(25.7) |
| | Bad | 1(0.6) |
| |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 Very satisfactory |
| A bit satisfactory | | 65(37.1) |
| Common | | 59(33.7) |
| A bit unsatisfactory | | 23(13.2) |
| Very unsatisfactory | | 4(2.3) |
| Satisfaction on major | Very satisfactory | 39(22.3) |
| | A bit satisfactory | 60(34.3) |
| | Common | 55(31.4) |
| | A bit unsatisfactory | 17(9.7) |
| | Very unsatisfactory | 4(2.3) |
|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 Fine | 35(20.0) |
| | Medium | 98(56.0) |
| | Poor | 42(24.0) |

3.2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수준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 진로정체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50점, 전문직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2점이었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기효능감은 성별($t=2.91, p<.01$), 건강상태($t=3.02, p<.01$), 대인관계($t=4.78, p<.001$), 대학생활 만족도($F=8.38,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F=11.46, p<.001$), 학업성적($F=11.0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중'과 '하'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은 건강상태($t=2.27, p<.05$), 대인관계($t=2.53, p<.05$), 대학생활 만족도($F=12.89,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F=24.26, p<.001$), 학업성적($F=8.8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보다 진로정체감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중'과 대인관계($t=3.57, p<.01$), 대학생활 만족도($F=18.54,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F=25.15, p<.001$), 학업성적($F=5.92, p<.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사후분석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만족', '보통', '불만족'의 순으로 전문직자아개념이 더 높았고,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중'과 '하'보다 전문직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진로정체감은 자기효능감($r=.57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직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r=.691, p<.001$), 진로정체감($r=.60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Professional Self-Concept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75)

| Variables | Categories | Self-efficacy | | Career identity | | Professional self-concept | |
|----------------------------------|-----------------------------|---------------|----------------------|-----------------|----------------------|---------------------------|----------------------|
| | | Mean ± SD | t or F(p) Scheffe | Mean ± SD | t or F(p) Scheffe | Mean ± SD | t or F(p) Scheffe |
| Gender | Female | 3.34±0.44 | 2.91** | 3.48±0.51 | 1.99 | 2.79±0.34 | 2.96** |
| | Male | 3.59±0.41 | (.006) | 3.66±0.43 | (.054) | 3.01±0.34 | (.006) |
| Grade | 3 | 3.35±0.41 | -0.85 | 3.49±0.49 | -0.30 | 2.83±0.36 | 0.43 |
| | 4 | 3.40±0.46 | (.398) | 3.51±0.51 | (.769) | 2.81±0.35 | (.669) |
| Religion | Yes | 3.40±0.44 | 0.54 | 3.54±0.54 | 0.72 | 2.83±0.38 | 0.30 |
| | No | 3.36±0.44 | (.588) | 3.48±0.48 | (.471) | 2.81±0.34 | (.767) |
| Health status | Good | 3.46±0.44 | 3.02** | 3.57±0.52 | 2.27* | 2.89±0.32 | 3.27** |
| | Below average | 3.26±0.42 | (.003) | 3.40±0.47 | (.025) | 2.72±0.37 | (.001) |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Good | 3.47±0.40 | 4.78*** | 3.56±0.48 | 2.53* | 2.88±0.34 | 3.57** |
| | Below average | 3.11±0.45 | (<.001) | 3.34±0.53 | (.014) | 2.67±0.35 | (.001) |
| Satisfaction on university life | Satisfactory ^a | 3.49±0.39 | 8.38*** | 3.67±0.45 | 12.89*** | 2.95±0.28 | 18.54*** |
| | Common ^b | 3.31±0.45 | (<.001) | 3.37±0.47 | (<.001) | 2.75±0.36 | (<.001) |
| | Unsatisfactory ^c | 3.13±0.46 | a>b,c | 3.23±0.52 | a>b,c | 2.54±0.37 | a>b>c |
| Satisfaction on major | Satisfactory ^a | 3.50±0.42 | 11.46*** | 3.71±0.43 | 24.26*** | 2.96±0.32 | 25.15*** |
| | Common ^b | 3.24±0.39 | (<.001) | 3.27±0.43 | (<.001) | 2.70±0.27 | (<.001) |
| | Unsatisfactory ^c | 3.12±0.43 | a>b,c | 3.14±0.58 | a>b,c | 2.49±0.38 | a>b>c |
| Perceptive academic achievements | Fine ^a | 3.67±0.41 | 11.04*** | 3.81±0.40 | 8.84*** | 3.00±0.41 | 5.92** |
| | Medium ^b | 3.31±0.40 | (<.001) | 3.43±0.48 | (<.001) | 2.77±0.32 | (.003) |
| | Poor ^c | 3.29±0.46 | a>b,c | 3.42±0.55 | a>b,c | 2.79±0.33 | a>b,c |
| Total | | 3.37±0.44 | | 3.50±0.50 | | 2.82±0.35 | |

a : difference of group 2 and group 3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Efficacy, Career Identity, Professional Self-Concept (N=175)

| Variables | Self-efficacy | Career identity | Professional self-concept |
|---------------------------|----------------|-----------------|---------------------------|
| Self-efficacy | 1 | | |
| Career identity | .577(<.001)*** | 1 | |
| Professional self-concept | .691(<.001)*** | .607(<.001)*** | 1 |

* $p < .05$, ** $p < .01$, *** $p < .001$

3.5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상자의 전문직자아개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전문직자아개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 6개의 변수, 그리고 전문직자아개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의 경우 명목척도에 해당하므로, 가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공차한계(Tolerance Limit)는 .585~.779로 0.1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s, VIF)는 1.283~1.710

으로 10이하로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 결과는 표준화 잔차가 -4.059~3.544이고, Durbin-Watson 값은 2.178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다.

대상자의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beta = .494$, $p < .001$), 진로정체감($\beta = .246$, $p < .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beta = .165$, $p < .01$)로 확인되었으며, 전문직자아개념을 5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73.61$, $p < .001$).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on Professional Self-Concept (N=175)

| Variables | B | β | S. E | t | p |
|---|------|---------------------|------|------|----------|
| Self-efficacy | .396 | .494 | .050 | 7.96 | <.001*** |
| Career identity | .172 | .246 | .046 | 3.18 | <.001*** |
| Satisfaction on major [†] (1=Satisfactory) [†] | .117 | .165 | .041 | 2.88 | .004** |
| Constant = 0.815 | | F(p) = 73.61(<.001) | | | |
| R ² = .564 | | Adjusted R2 = .556 | | | |

[†]Dummy variable

* p <.05, ** p <.01, *** p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을 파악하고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 중 평균 3.37점이었는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중 1~3학년의 경우 3.78점[3], 1~4학년의 경우 3.44점[7]으로 저학년인 1, 2학년이 포함된 연구결과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 3년 이하 초보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3.64점[13]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3학년의 자기효능감이 3.35점으로 4학년 3.4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기가 3학년 1학기 첫 임상실습이 끝난 후에 해당하여, 임상수행능력과 관련해 본인의 직무 만족과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면서 자기평가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저하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로정체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50점으로,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Likert 4점 척도의 진로정체감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간호대학생 1학년 대상의 3.33점[9]보다 높고, 4학년 대상의 3.48점[35]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대체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정체감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학년이 진로정체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36]. 그러나 1~4학년 간호대학생 대상의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른 차이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37], 이 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직자아개념은 4점 만점에 평균 2.82점이었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본 연구와 동일하게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2.81점[21]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상간호사 대상의 2.63점[4], 2.72점[12]보다는 높은 점수였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의 경우 전문직자아개념이 가장 높고, 1년 이하로 근무한 신규간호사의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16] 간호대학생 고학년 시기부터 신규간호사로 연결되는 시기까지 간호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상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교육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성별, 건강상태, 대학생활의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교성적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어[38]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별, 건강상태,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등에서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39]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보통’ 또는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중 전공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이하’의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던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39].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업성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학생활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학교 및 학과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은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대학입학 후 만족도[9], 전공만족도[3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대상자의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이라고 답한 경우보다 진로정체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대학입학 후 만족도가 높을수록[9],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36]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아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자아개념은 성별, 건강상태,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학업성적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교우관계, 학업성적[20], 전공만족도[21]에 따라 전문직자아개념에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었던 결과[21]나 성별[3,21], 건강상태, 학업성적[21]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므로, 다양한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전문직자아개념 차이를 확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후분석을 진행한 결과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자아개념이 더 높았는데,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낮음' 또는 '보통'이라고 답한 집단보다 전문직자아개념이 유의하게 높았던 [21] 선행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학업성적이 '상'인 집단이 '중'과 '하' 집단보다 전문직자아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20]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선행연구가 부재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진로성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을 연구하는 메타분석에서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순으로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에 대해 큰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40] 본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진로정체감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전문직자아개념은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결과[3,7,13,38]와 일치하였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선행연구는 찾을 수 없었으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한 바[41], 전문직자아개념과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로

정체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의 상관관계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의 수행을 통해 명확한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파악되었고, 이들 변수가 전문직자아개념에 대해 56.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전문직자아개념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선행연구 [3]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간호학 지원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파악되었고 이러한 변수들이 전문직자아개념을 4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56.4%에 비해 설명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규명한 것은 본 연구의 큰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입생 시기부터 단계적인 중재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진로정체감을 강화하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과와 학교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역사박물관 탐방, 대한간호협회 탐방 등 간호역사문화 융합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전문직자아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고[28], 간호대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근대간호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 간호사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수행한 결과, 실험군의 자기효능감과 전문직자아개념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어[42] 간호대학생의 전문직자아개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거나 취업이 임박해 있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간호사의 재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전문직자아개념의 영향요인을 파악해 중재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간호학과의 재학생만을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문직자아개념을 확인하고,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진

로정체감, 전공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문직자아개념이 높은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이 변수들은 전문직자아개념을 56.4%의 설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3, 4학년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저학년에 해당하는 1, 2학년과 고학년에 해당하는 3, 4학년의 전문직자아개념 비교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전문직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전공 만족도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영향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전문직자아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구축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Nurse Working Environment and Treatment Improvement Measures*. <https://www.medipana.com/page/download.asp?BoardNum=10998>
- [2]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6).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in 2016*.
- [3] M. K. Jeon. (2013).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19-129. DOI : 10.12811/kshsm.2013.7.4.119
- [4] M. Je, H. M. Son & D. H. Kim. (2017). The Impa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e Practice Environment on the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1), 527-541.
- [5] A.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6] T. A. Judge & J. E. Bono. (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 Evaluation Traits Self Esteem, Generalized Self 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 Meta 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80-92. DOI: 10.1037//0021-9010.86.1.80
- [7] M. S. Kim. (2011).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59-167.
- [8] J. L. Holland, D. C. Diger & P. G. Power. (1980). *My vocation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y Press.
- [9]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10] Y. H. Kwon & O. G. Kwag. (2012). Validation of a Path Model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0), 4572-4581. DOI : 10.5762/KAIS.2012.13.10.4572
- [11] M. S. Park, M. H. Lee & J. A. Gu. (201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2), 111-123.
- [12] M. H. Sung, Y. A. Kim & M. J. Ha. (2011). The Relationships of Professional Self-Concept, Professional Autonomy and Self-esteem to Job 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4), 547-555.
- [13] D. H. Moon. (2016).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in Early stage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646-653. DOI : 10.5762/KAIS.2016.17.8.646
- [14] H. M. Yang. (2018). Effects of th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Work Outcome: Focused on the Nurses in Small and Medium Hospita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1), 87-97. DOI : 10.5392/JKCA.2018.18.11.087
- [15] S. Y. Lee, J. S. Lee, S. Y. Kim & J. Y. Lee. (2017).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in Nur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273-281. DOI : 10.14400/JDC.2017.15.9.273
- [16] Y. J. Kim, H. K. Song & M. A. Lee. (2011). Perceived Relationship among Professional Self-Concept, Head Nurse's Leadership, and Nursing Clinical Competency by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1), 96-105.
- [17] M. H. Sung & E. Y. Choi.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Performance and Retention Intention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44-252.
- [18] A. R. Min & I. S. Kim. (2013). Relationship of Perception of Clinical Ladder System with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Empowerment based on Nurses' Clinical Career Stag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9(2), 254-264. DOI : 10.11111/jkana.2013.19.2.254
- [19] H. O. Jeon. (2018). The Effects of Verbal Violence in Clinical Practice, Academic Stress Coping, and Depression on Professional Self concepts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8), 501-512. DOI : 10.5762/KAIS.2018.19.8.501

- [20] H. S. Hyun, Y. Y. Kim & E. S. Jang. (2018).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Job-Seeking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12(1), 149-160.
DOI : 10.12811/kshsm.2018.12.1.149
- [21] S. J. Kim. (2018). Effects of 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ion of Nurse on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1), 1-10.
DOI : 10.7739/jkafn.2018.25.1.1
- [22] O. S. Lee & Y. G. Noh. (2017).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Problem Solving Skills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349-358.
DOI : 10.14400/JDC.2017.15.12.349
- [23] S. H. Park & S. H. Han. (2016).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8), 517-526.
DOI : 10.5762/KAIS.2016.17.8.517
- [24] H. H. Park. (2016). A Study on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0(5), 209-218.
DOI : 10.21184/jkeia.2016.10.10.5.209
- [25] M. S. Lee & Y. O. Ha. (2015).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2), 8738-8744.
DOI : 10.5762/KAIS.2015.16.12.8738
- [26] H. J. Ju.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8), 213-224.
DOI : 10.14400/JDC.2017.15.8.213
- [27] H. O. Oh. (2017).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1(2), 31-43.
- [28] S. Y. Yim & H. Kim. (2017). Comparison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s Image Before and After Convergence-based Nursing History and Culture Progra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9), 85-91.
DOI : 10.15207/JKCS.2017.8.9.085
- [29] F. F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30] M. Sherer, J. Maddux, S.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 R.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1), 663-671.
- [31] H. Y. Hong. (1995).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2] S. J. Kim & S. H. Ki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Identity Scale for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3), 1425-1441.
- [33] D. Arthur. (1990).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Unpublished master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 [34] C. H. Song & C. H. Noh. (1996).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1), 94-106.
- [35] Y. S. Im, H. J. Kwon, G. O. Noh & K. R. Bae. (2016). Verbal Abuse and Lowered Career Ident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8(4(B)), 2315-2328.
- [36] J. H. Kim et al. (2015).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9), 6027-6035.
DOI : 10.5762/KAIS.2015.16.9.6027
- [37] Y. H. Kim & Y. C. Kwon. (2018)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2), 215-224.
DOI : 10.14400/JDC.2018.16.2.215
- [38] N. H. Kim & K. W. Kim. (2011). Self-Efficac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5(4), 41-51.
- [39] S. Y. Yun & M. Kim. (2014). A Study on The Relevance among Self Efficacy, Major Satisfaction, Nursing Ethics Values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363-372.
DOI : 10.14400/JDC.2014.12.2.363
- [40] J. S. You & W. S. Seo. (2014). A Meta-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Psychological Variable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65-183.
- [41] J. A. Seong, S. Y. Bang & S. Y. Kim. (2012).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8.
- [42] S. I. Park & E. H. Seo. (2012). Effects of Nurse Newspaper In Education (NIE) on Self Efficacy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2), 179-187.*
DOI : 10.5977/jkasne.2012.18.2.179

채 명 옥(Myung-Ock Chae)

[상위권]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과 (간호학사)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
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

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의 안전, 성장발달, 시뮬레이션교육
- E-Mail : 7702cmo@cju.ac.kr